

# 그들은 어떻게 예상하고 있나?

## 스티로폴 공급 및 소비업체 담당자들의 2012~2013년 소비 전망

「환경사랑」은 국내의 스티로폴(EPS)소비와 관련, 2012~2013년도의 소비 전망을 알아 보기 위해 관련업체 담당자들의 의견을 들어 보았다. 물론 현장에서 뛰고 있는 일선 담당자들에게도 향후 전망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료업체 6개소, 가공업체 17개소, 가전업체 6개소, 식품업체 4개소 등 33개 업체의 담당자들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 했다. 그 결과를 정리한다.

### 공급자(원료사 및 가공업체) 측의 전망

#### 1. 평판 : 맑음 ☀

구분	계	증가	정체	감소	무응답
응답 수	23	9	3	3	8

답변한 15개 업체 중 9개 업체가 증가를 예상했다. 특히 건설경기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 제주 지역이나 전주 혁신도시 건설 등의 요인이 있는 전북의 평판 공급업체들은 지역 특수에 따른 수요를 증가 요인으로 들었다. 그러나 전반적 건설경기 부진을 들어 수요 감소를 전망한 업체들도 일부 있었다. 일반적으로 업계는 정부의 에너지 절약 정책에 의한 사용 두께 및 비중 증가가 평판의 수요 증가에 일정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2. 형물

##### 1) 농산물 상자 : 맑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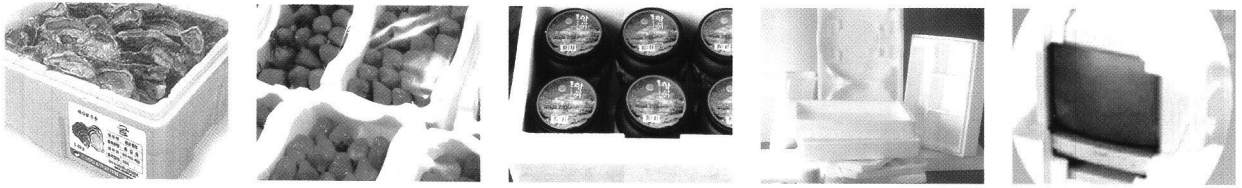
구분	계	증가	정체	감소	무응답
응답 수	23	10	6	3	4

스티로폴 농산물상자의 사용은 지난 10여 년간 큰 폭의 감소를 보여 왔다. 정부의 대체 상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를 직접적 이유로 들 수 있으며 포도, 딸기 등 스티로폴 상자의 주요 사용 과일 유통이 소포장화 한 것도 감소 요인으로 지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스티로폴 농산물상자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보는 견해는 응답 19개소 중 3개소로 16%에 그쳤다. 오히려 2011년도에 비해 소폭이지만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이 10개소로 반 이상을 차지했다. 농산물의 유통 고급화 등으로 택배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스티로폴 상자의 사용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미 대체재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대부분 없어진 상황에서 스티로폴 사용에 대한 규제가 완전 해제 되고 농산물 검사소가 마련 중인 스티로폴 규격상자 제정이 완료 되면 향후 스티로폴 농산물 상자 사용 추세는 생각보다 큰 폭의 신장을 이룰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여기에는 소포장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기능성 농산물 포장의 개발 등 업계의 노력이 전체 몫은 말할 것도 없다.

##### 2) 수산물 상자 : 흐림 ☁

구분	계	증가	정체	감소	무응답
응답 수	23	6	7	7	3

현재까지 위생성, 방수성, 선도유지 등에서 스티로폴 상자를 능가하는 수산물 포장재는 없다. 당분간 그러한 추세는 변동이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는 향후 스티로폴 수산물 상자의 사용량은 정체 내지 감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 가장 큰 이유로 그간의 무차별적 납획과 기후 변화에 따른 어획량의 감소를 꼽고 있다. 특히 직접 어상자를 공급하는 업체일수록 이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일부 신선도 유지의 강점 및 흡수판 판매 증가 등을 들어 증가를 예상한 업체들도 있으나 당분간 수운의 변화에 따른 어획과 감소의 벽을 넘어서지는 못 할 것으로 보인다.



### 3) 전자제품 완충 포장 : 비 ☁

구분	계	증가	정체	감소	무응답
응답 수	23	1	2	11	9

초창기 가전제품 완충 포장재의 주종은 뛰어난 완충력과 경제성을 갖춘 스티로폴 제품이었다. 한 때 사용 후 처리 문제를 시비 삼아 대체 포장인 지류 포장이 대두되었으나 업계와 협회의 노력으로 스티로폴 재활용이 활성화됨에 따라 그간의 스티로폴 사용 억제 정책도 완전 해제되어 스티로폴 전자제품 완충 포장재는 아직도 그 위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스티로폴 공급업계는 2012년 현재 스티로폴 전자제품 완충포장의 미래를 어둡게 보고 있다. 응답업체의 대부분이 향후 전자제품용 스티로폴 완충포장재 사용은 감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전자제품 제조업체의 생산 공장 해외 이전이 가장 큰 이유이며 높아지는 수입의존도도 주요 요인으로 들고 있다. 단지 1개 업체 만이 증가를 예상하였는데 이는 개별업체 상황으로 수요 증가에 따른 소비량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

### 4) 식품포장 상자 : 맑음 ☀

구분	계	증가	정체	감소	무응답
응답 수	23	9	5	3	9

공급업계가 향후 사용량이 가장 확실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는 품목은 식품포장 상자이다. 응답한 14개 업체 중 감소를 전망한 업체는 한 군데도 없었다. 유통 고급화, 홈쇼핑 판매 증가에 따라 신선도 유지와 완충력에 강점을 지닌 스티로폴 상자의 사용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가파른 신장을 위해 기능성 보완 등 지속적 개발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 5) 기타 품목 : 흐림 ☁

구분	계	증가	정체	감소	무응답
응답 수	23	2	7	3	11

주로 부자 품목에 대한 응답으로 증가를 예상한 답변은 적었다. 대개 정체를 예상하였으나 개별업체 상황으로 경쟁과다로 인한 감소를 예측한 업체도 있고 재활용 분담금으로 인한 대체재질과의 경쟁력 약화로 인한 감소를 우려한 업체도 있었다.

\* 표 상에 '무응답'은 해당 품목을 취급하지 않거나 전망할 수 없는 경우 임

사용자 측의 전망

1) 전자업계 : 밝음 ☀

구분	계	증가	정체	감소	무응답
응답 수	6	5	-	1	-

공급자 측 업체들이 전자제품용 완충재 사용에 비판적인 것에 반해 사용업체들은 대부분 사용 증가를 예상하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응답 업체 수가 적어 전망치 신뢰도에 의문을 가질 수도 있으나 응답업체들이 대부분 의무생산자 중 규모가 큰 업체에 해당되어 전망이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대부분 업체들은 가전제품의 수요 증가와 고급화, 대형화 추세로 스티로폴의 사용이 소폭이지만 늘어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감소를 예상한 업체는 감량화 정책 시행 시 대체재로 변환 된 포장 방법으로 감소를 예상하고 있으나 법 개정으로 스티로폴 사용 억제가 해제 됨에 따라 향후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2) 식품업계 : 밝음 ☀

구분	계	증가	정체	감소	무응답
응답 수	4	3	-	1	-

식품업체들은 신선도 유지 강점, 인터넷 판매 활성화 등으로 스티로폴의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냉·온 음료 판매업계가 보온·보냉, 열차단성 등의 장점으로 스티로폴(EPS) 컵의 사용을 선호하고 있어 이 부분의 신장세는 획기적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판매품목의 매출 감소를 예상하고 있는 업체가 사용량 감소를 전망했다.

전체 시장에 대한 소비 전망 : 소폭 상승 전망

\* 2011년도 대비 2012 ~ 2013년 스티로폴 소비전망

구분	계	증가	정체	감소	비교
원료업체	6	2	3	1	
가공업체	17	4	7	6	
가전업체	6	5	-	1	
식품업체	4	3	-	1	
계	33	14	10	9	

전체 스티로폴 시장에 대해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응답 업체의 14개소(42%)가 사용 증가를, 9개소(27%)가 감소를 예상 했으며 10개소(31%)는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특히 스티로폴 포장재 공급업체들이 정체 내지는 감소를 예상(17개 업체, 74%)하고 있는데 반해 포장재 사용업체들은 80%가 사용 증가를 내다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2012 ~ 2013년도는 2011년도에 비해 품목별로 전망과 변동 폭은 다르나 전체적 사용량은 소폭 상승하거나 크게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관련업체 담당자들의 조심스런 전망이라 할 수 있다.